



은행 (Positive)

10월 연체율: 계절성 감안한 연체잔액은 정체 중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5년 10월 말 연체율은 0.58%(+10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연체 규모가 한 달 만에 재차 연간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아쉬운 점이나, 연체 정리 규모가 예년 대비 적었던 것과 3개월 이동평균 연체 잔액이 6개월째 정체된 것을 감안하면 연체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은행 10월 말 연체율 0.58%(+10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10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8%(+10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93%(+19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2%(+7bp YoY)로 상승.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도 0.14%(+10bp YoY)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가계 연체율은 0.42%(+4bp YoY)로 상승.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5%(+9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9%(+4bp YoY)로 2025년 월 평균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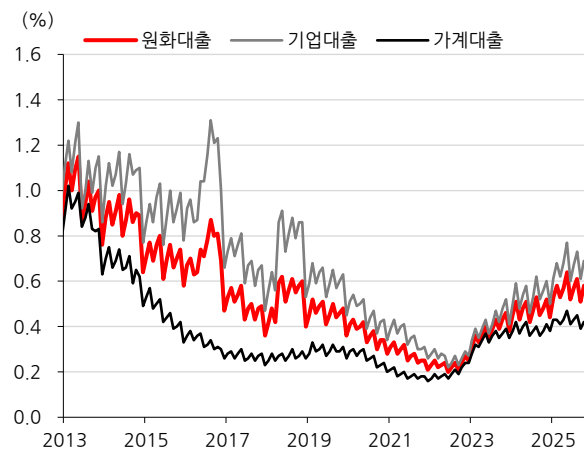
연체 정리 규모의 감소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0월 말 14.1조원으로, 25% YoY 증가한 것으로 추산 (그림 7)
- 10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2.9조원으로 전월(2.5조원)보다 다시 증가했지만, 이는 2025년 월 평균과 동일한 규모 (그림 9). 한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1.3조원(-24% YoY)으로 감소하면서 예년의 10월과 비교해도 낮아진 수준을 보임 (그림 10). 2023~2024년에는 매월 증가(YoY)하기만 했던 정리 규모가 2025년 들어 네 번째 감소를 기록
- 기업 (추정): 10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27% YoY로 추산. 신규 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확대되었던 전월보다 증가율이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함 (그림 12)
- 가계 (추정): 10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4% YoY로 추산. 이 또한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보다는 상승했지만 추세적인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2)

개선의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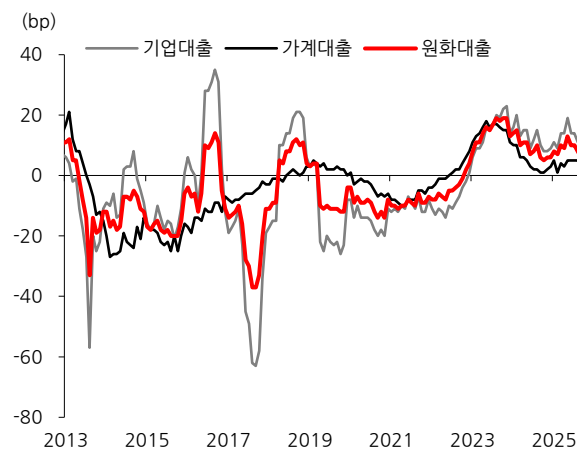
- 연체율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가장 민감한 지표인 신규 연체 규모가 한 달 만에 재차 연간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아쉬운 점
- 다만 연체 정리 규모가 통상 연중 최저치인 1월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온 것(그림 10)과 계절성을 감안한 3개월 이동평균 연체 잔액이 6개월째 정체된 것(그림 7)을 감안하면 연체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임
-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어 보아야 하겠으나, 그 시점을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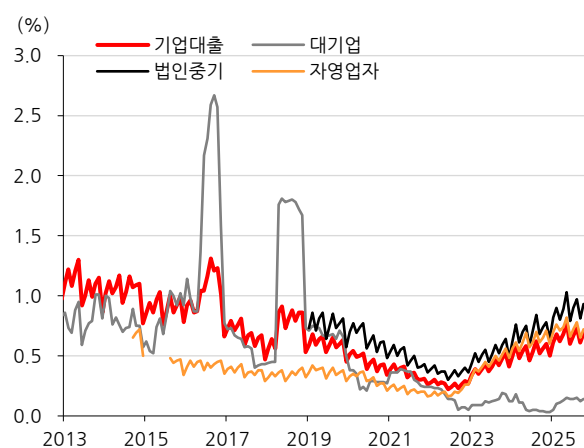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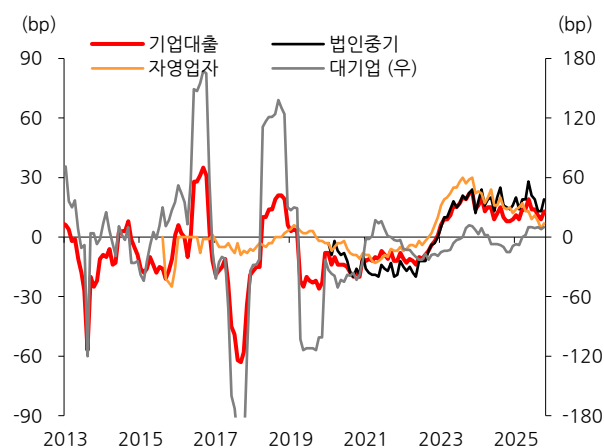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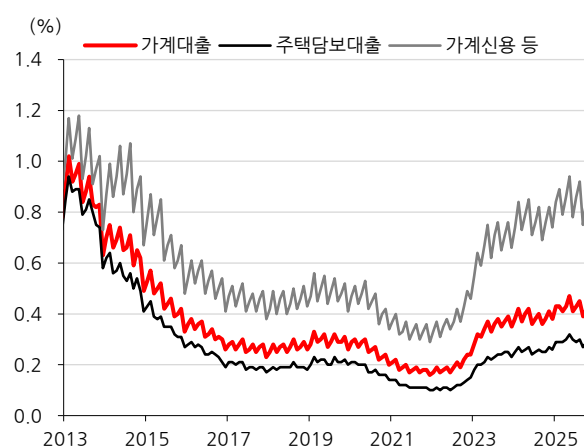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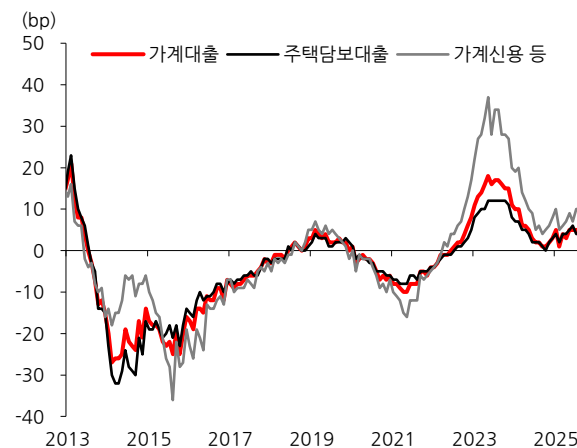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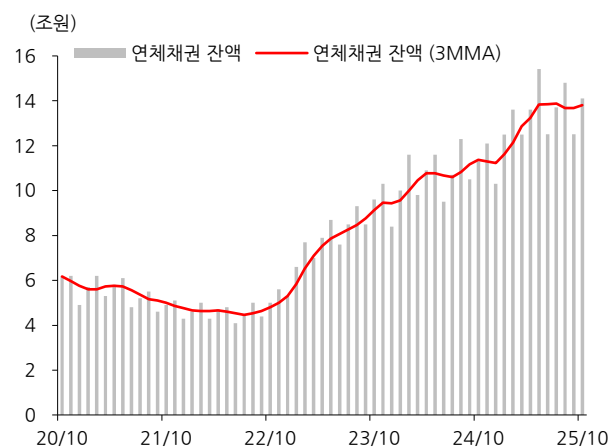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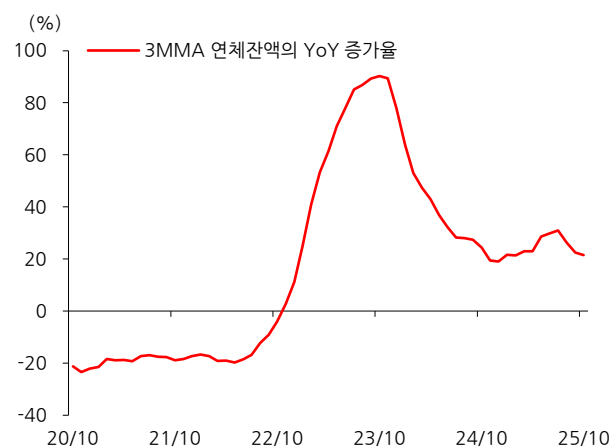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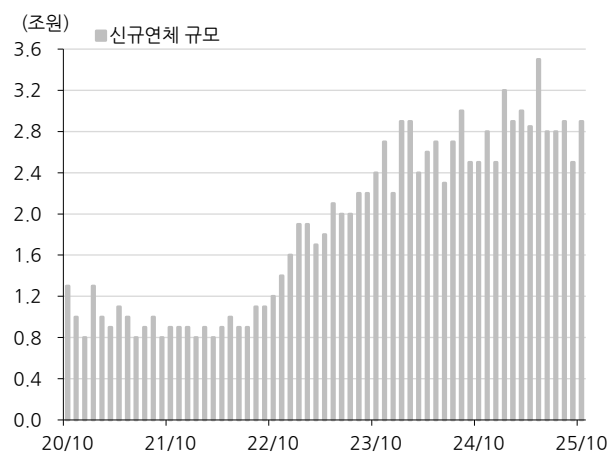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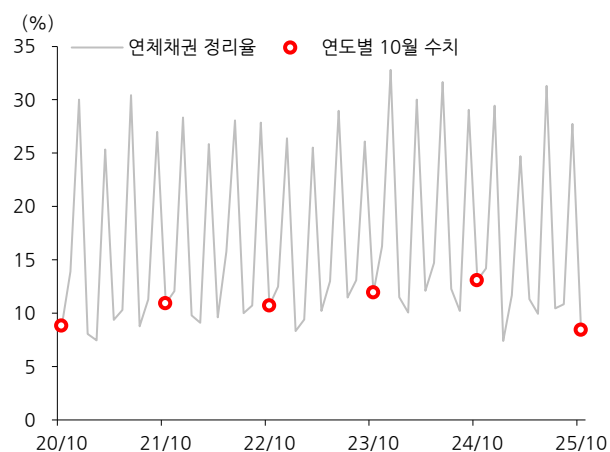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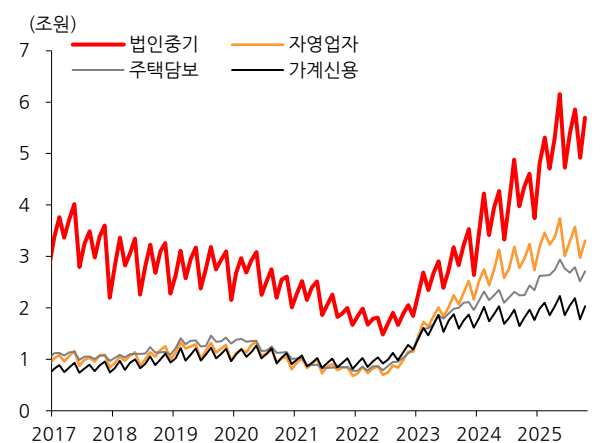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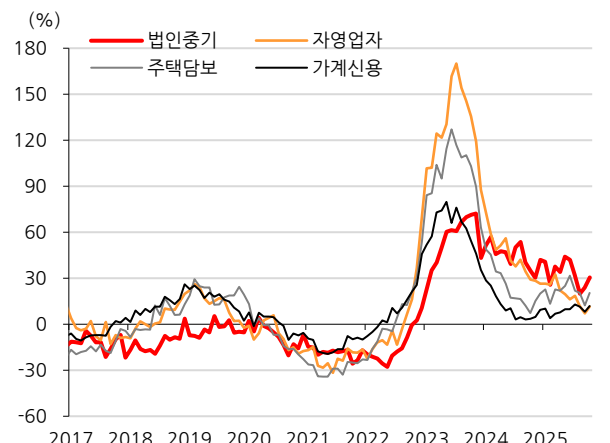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12월 26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9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2.9%	17.1%	0.0%	100.0%